

102



김영철 선생

김영철 선생은 1918년 시월 19일에 (음력 무오년 9월 19일) 원동변강 아누친구역 무명촌 3호 동리에서 탄생 하였다. 당시 아버지는 제정 러시아의 관리하지 않는 공지-황무지를 개간하여 자기 생각대로 파종하여 먹고 살았 던바 그의 생명은 김은보였으며 그는 함경북도에서 1889년에 탄생하였다. 영철 선생의 부친은 조성은 일본 제국 주리가 함양한 다음 1917년에 만주에 와서 고용사리를 하면서 젊은 처녀에게 장가들어 살다가 1918년에 원동에 이주하여 와서 살았다. 이 주민들이 한곳에 집중적으로 살지 못하고, 2-3-4 호씩 분산 되어 살았으며 그적은 마을의 간격도 3킬로부터 10킬로 혹은 15킬로 까지 되었음으로 어떤 학교조직에 대하여서는 상상하기도 어려웠다.

이 작은 마을의 부모들은 하는 수 없이 가까운 몇 개의 소 마을  
 식물에서 개인 서당방을 열고 거기에서 몇 명의 아이들이 공  
 부 하도록 하였다. 김영철 선생은 어렵게 조직된 서당방  
 에서 혼자 공부를 하게 되었으나 동학교에는 형생이 드대  
 늘 5 명이었다. 이렇게 약 2년간 혼자 공부를 하다가  
 1927년에 김선생의 <sup>부모</sup>들이 아늑한 구역에서 야고블레  
 부 구역으로 이사하여 감에 따라 김영철 선생은 러시아  
 인 학교 1학년에 공부하게 되었다. 학교에서 공부하기는 아주  
 좋았으며 교원들도 아주 훌륭하였으나 러시아 아이들이 하  
 학시간이면 밖에서 나가서는 "감장러리야", "갓맹이냐" 하고 너를  
 나 하공하는 원인으로 공부를 계속할 수 없었다.

1929년 여름에 김선생은 소년단 대회에 야고블레  
 근소재지에서 진행되는 참가하게 되었다. 대회는 김선생을  
 주 소년단 대회의 참가자로 선거하게 되어 블라지보스도프시  
 에서 그 대회에 참가하였다. 1930년에 꼴노르가 조직되  
 였고, 꼴노르는 아동교육을 위하여 소학교를 열었는데 그때  
 부터 김선생은 공부하기 시작하여 1933년에 초등 1학년에 진급  
 (되)은하였으나 호열자 병에 걸리어 5 학년을 중퇴하

였다.  
 김선생은 1934년부터 러시아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집이 먼 관계로 러시아 학생들과 같이 합숙 생활을 하게  
 되었다. 김선생은 원룸에서 러시아 초등 2학년을 필하시고

중아시아에 이주할 당하게 되었으나 1937년 10월 24일 저녁에 하유겐트 시내 도착하여, 25일 아침에 화물차로 하유겐트 주 중철철구역 "코슬발가골노르에 도착하였다. 집가정 형편은 넉넉하지 못하였으나 젊은 나이에 꼭어르 꼭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결심으로 코슬발가골노르에 입학하여 공부하였던바 제 삼학년 시절

● 성적에 우수하여 70 루블의 상급까지 받게 되었다 그러나 재학중 중도에서 점수로 부족 동생 2명이 병환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편지를 받았다 집에와보니 동생들이 죽은후 어머니도 세상을 떠나셨다 어린형편에서 다시 학교에 돌아갈수 없게 되었다. 김 선생은 1939

● 년 3월 부족 중철철구역 까라부촌 소비조합 서기장으로 일하였다. 이렇게 하여 김 선생은 가정을 보유하였으며 어린 동생들이 먹고 입고 공부할수있는 조건을 짐나 주었다.

김 선생은 1939년에 소련공산당에 입당하였으며, 1940년 정월 7일에는 김 클라브지야 포도롭나와 결혼하게 되어 아주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

1941년에 소련 조국전쟁이 시작되자 어려운 경제형편을 타개하기 위하여 골노르 건설건축 책임자로 일하였으나 일년이 지나자 1942년 12월에 김 선생은 포력전선에 동행하여 하유겐트 주 앙고렌 한광 건설장에 도착하게 되었으나, 여기에서는 김 선생은 건설기업소 공급부장으로

약 일년간 일한후 김선생은 동 군사공무원부의 명령에 의하여 나, 중월척 군 군사공무원부에 도착하여 "굴리노한" 글로프를 건축 책임자로 일하였다. 1944년 3월에 중월척구역 공산청년회 대회가 진행되었던바, 이 때회는 김영철 선생을 구역공산청년회 비서로 선거하였다.



사진은 김영철 선생이 군공산청년동맹 비서로 계시시 자기 부인 김클타브지야와 군공청회 제2비서와 함께 하여 촬영한 장면.

김영철 선생은 군공청동맹 직무에서 1946년 말까지, 즉 북한에 파견될 직전까지 아주 열성적으로 일하여 많은 군중들의 의신있는 간부로 활약하시었다. 1947년 정월에는 중월척 군당 위원회의 파견에 의하여 활동력의 강하여 열성적 전방성있는 간부로써 평북한에 파견할 간부 단기강습에 선출되어 하유계호시 교육성 산하 강습소에서 약 1개월간 강습받은 다음 1947년 12월에 북한에 파견되게 되었다. 1948년 12월 중순에 평양에 도착하여 "동양"에 관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 김선생은 중앙당 학교 교원 및 조선 인민력사 교원

임명 받았으며, 부인 김클라브지야드 클에코원으로 일하게 되  
었다. 김선생은 중앙당 학교 교원으로 일하시면서 큰대, 법  
법을 대 학교 교원을 겸임하시면서 쉼표를 하시 법역사업  
까지 하시었다.

1950년 8월 25일, 일요일에 전쟁을 북한은 시작하

- 었다. 모두가 약 될까봐, 그렇지 아니면 한 달만 어쩔 전쟁  
은 남한은 북에 항하는 흥일로써 끝나리라 예견하였으나  
이런이 남한은 인접한 관계로 전쟁의 승리와 끝은 예견  
할수 없는 우유깍끼로 화하였다. 이런 형편에서 김선생은  
자기 친구 김철우, 박출씨와 회의하고 가족을 조선의 최종북쪽  
국경선 회령에 파견하여, 예전 중앙당 학교 졸업생인 군당의  
원장 최씨에게 부탁하여 주선하여 무로록 하였다. 그러나 그  
것은 긴시간이 못되었다 시월 초순이 되자 회령은 위험한  
지점이 되하여 여기에서 가족들은 군당의 주선에 의하여 중국  
함양시에 조처하여 전방적 노련관복들이 가족과 함께  
함양시에서 살게 되었으며 이 당시 여기에서는 조천강북에서  
파견한 정복대대가 가족들의 모든 문제를 돌보아 주었으며  
화결하여 주었다. 그 후 이 간부가족들은 1953년 8월까  
까지 계속 여기에서 국가 보조금으로 살면서 아이들도 공부씩  
했다. 혹 경우에 고급간부들은 자기가족 방문자로 이곳까지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으나 이것은 (적령) 뿐이었다.

이후 김경철 선생은 중앙당의 파견을 받아 서울에 4개월

되었다. 7월 19일에 평양을 출발하여 기차로 많은 고생을<sup>6</sup>  
 극복하면서 3일만에야 서울시 중앙청에 도착하여 당시 남한  
 중앙당 간부부에 도착하여 서울시 영등포구 당학교 교장으로  
 임명받아 약 일개월간 일하면서 일개월간 다기



강습으로 당, 행정기관 일꾼들과 배부기관 기차사부기관 일꾼들 배  
 위를 다스려, 또 다시 당 중앙의 화견으로 경상북도 대구시 당학교  
 교장으로 파견되어 조선의 최남선 땅에 가게 되었으나 그 당시  
 남한 땅에서는 여하한 운수기관이나 철도기관 등이 적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였다. 화는 없어 임선생과 같이 파견된 2동  
 부는 (이 동부들은 그 당학교 교원으로 파견되었다) 밤을 리용하여  
 걸어가기를 결심하고 출발하여 갖인 고생을 다하면서 약 2주  
 만에 대구시에 도착하여 계획적으로 사업하게 하였으나

사실은 계획과 전혀 다른 형편이었다. 대구에 가는 길에  
 금성에 도착하니 대구시는 아직 해방되지 않아 금성과  
 안동에 또 지도간벽들이 있다고 하기에 안동에서 도당  
 위원장을 만나 도당 학교를 안동시에 열기로 하고, 수업 기간  
 은 15 일간으로 정하고 세 일기를 끝낸 후 벌써 제2기

- 생들이 용이 공부하는 도중 도당 위원장에게서 비밀 서한이  
 오기를 적들이 추풍령과 탁동강 유역의 방어선을 돌파하고  
 급속으로 북을 행하여 공격하고 있으니 속한 시간내에 전원을  
 인솔하여 갖고 평양으로 행하여 후퇴하라던 것이었다. 이것이  
 벌써 9월 중순쯤이었다. 후퇴해야 할 전원은 교직원까지 합하  
 여 약 130 명 되었으나 집이 근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각기  
 고향으로 떠나야 하려고 결심하였기 때문에 전원 90 명 정도  
 가 행군에 나섰던 것이다. 우선 적기들이 기총소사를 계속하기 때  
 문에 낮에는 행군이 전혀 불가능하였으며, 행군에 나선 전원이  
 북한에서 왔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38 선 유역 남한당 사람들  
 이기 때문에 어긋 지형과 지도를 전혀 몰랐으며, 또 군사  
 출신, 또는 군사-전후 경험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행군  
 이란 것을 어떻게 해야 하든지 상방을 모르는 집안이었다.  
 하여튼 북한으로 가는 길은 물론이면 군중들이 이상하게 너길가  
 바 북쪽에 있는 큰 도시의 길을 틀어 가며 매일 35-40 킬로  
 정도로 길을 밟았다. 대오는 밤을 타고 나면 밝은 성원들로

4-5 명씩 축소되고 새 성원들은 20-30 명까지 12일 <sup>8</sup> 채  
로 편입되어 북강원도 평강에 이르니 전성원은 180명에 달  
하였다 그런데 본래 행군 방향을 정한 곳은 평양이었으나  
10월 초순에 들어서면서 이군은 서울로 직행한다음 38선  
을 넘어 평양에 방향을 정하였다고 하였다. 이런 환경에서

● 김선생은 행군 방향을 변경시켜 평북 초소를 목표로 하고 계  
속 추진할 것을 결심하였다. 행군하는 전원의 발은 전부 다 벗  
고 물 통령이 되고, 뱀 언살이 내릴로 피까지 흐르는 경포였으나  
그래도 걸어야 살길이 전망이었으니 걸어야, 걸지 못하면 적에  
게 포로 되어 그들의 짐까지 등에 지고 걸어야 되니까, 걸지 못하  
면 큰길 옆 개랑 함에 총살하여 처넣는 형편이었다. 그래서

● 걸어야 하였다. 그런데 걸자 하나 또 걸어야 하였다. 먹자  
하나 씹어 먹고, 난 한 두면들에게로 가서 어린 아이들을  
데린 여인 등이 눈물기 한숨을 뉘면서 원망하는 것을, 전  
쟁을 원망하는 것을, "누가 이 전쟁을 야기시켜 준 체인지, 어린  
아이들까지 죽여 죽여 하는 것이냐? 그 원망을 하는 것들로 들으  
면 그집에 들어가 밭어막 쌀구버너를 놓아 가지고 나오면 사람  
덜도 도루 그녀의 밭에 놓아 놓고 나오는 형편이었다. 그래서  
행군하던 사람들은 지방농민들의 밭에 나가 호박, 감자, 배채, 무우 등  
과 양팍 말라 먹지 못할 옥수수까지 얻어 삶아 먹곤 하였다  
그런데 이 행군 때 딸이 백병이냐 천명만 되는 것이 아니라 무  
십만병이 매일같이 어떻게 먹할 하여 먹다 보니, 굶는

9.

도착한 사람들에게는 이것도 없어서 강할하여 먹지 못하였다.



사진은 김영철 선생이 1952년에 공화국 사회안전성 정치국  
선전부장으로서 개설시 안전성 협주단 성원들과 함께 찍은 사진.

김 선생 일행은 세상에 제일 어려운 고생을 참으면서 여러차례  
양력 맹산을 지나 최선 덕천 운곡을 거쳐 초산에 도착하였  
으며, 그곳에 도착하고 보니 월반은 군중들에게는 돈도 없거나  
와 동복이 없어서 떨게 되었다. 이곳에서 다시 지시를 받아  
조반에 도착하니 (동반국 국경로) 향리 북로 외출단의 영  
의로 도착한 검은 밤에 죽을 먹게 되었으며, 칩어던 번 불상  
한 군중은 동복로 타 없었다 이 군중은 남한 안중에서 떠  
나지 40 일만에 조반까지 도착하면서 한번은 내복로  
갈아 입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리역도 한번 간 것이 없다  
보니 눈물에 이복성이기 되어 앉으면 글다 보니 갈수록  
어렵다. 원래는 먹지도 하고 세 의복로 갈아 입고 보니 좀 살수

있는 전망이 있는것 같기로 하였다.

여기에서 집대연의 지시에 따라 김선생은 증만 이만반우  
 시에 중앙당학교가 임박하여 왔다는 통보에 따라 가서였다. 김  
 선생을 따라온 전희 성원등이 다함께 가서 중앙당학교에 가서  
 등교를 식했다. 김선생은 한중에서부터 동학하여온 과정 총화 보고  
 를 중앙당학교 교장 허익 선생에게 제출한 다음 예전과 같이 소련  
 력사 교원 및 글러 교원으로 임명 받고 가족을 찾아 함경북도 후평  
 을 돌아 함흥시에까지 가 다녀왔다. 그후 김선생은 이리반우  
 중앙 당학교에서 약 2개월 동안 일하시던 당시 당중앙지  
 시에 따라 평양에 도착하여 사회안전성 경희국 선전선동  
 부 부장으로 임명받아 일하게 되었다.



사진은 김선생이 사회 경희 안전성에서 일하실시 후  
식 시간을 리용하여 모란봉에서 촬영한것이다.

김영철 선생은 사회 경희 안전성에서 김시간 - 약 8년간  
각급 부장 직 부에서 일하시었다.

장시간 생활에서 가장 복잡한 사회 안전성에서 일하시  
다 보니까 미국 대에 복잡한 사변들이 많이 겪었으며 또  
그런 사변들을 취급하고 해결책으로 채택한 일도 많았을 것  
이다. 김영철 선생의 자서전에서 한 예 테비노트를 읽어  
보기를 하자. « 바로 1951년 8월 14일 이른 아침이었다

● 평양시 상공을 불탄개가 작욱이 끼고 굵은비가 밤처럼 계속하  
하여 흐르고 있었다. 먼저 사이렌 소리가 야생하듯 들려  
온다음 하늘이 진동할 듯한 비행기 발동기 소리들이 남쪽하  
늘로 북히 들려 오고 있었다. 김 선생은 평양시 남쪽시 북근

● 선교리, 한개 층층이 똑갈라진 벽돌집 일층에 자리 잡고 있는  
사회 안전성 정칙국 사무실에서 밖으로 뛰여 나와 북은피  
변이 나서 천지를 진동시키는 발동기 소리가 들리는가 하고 하  
늘을 쳐다 보고 서 있었다. 아니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늘에는 비록  
에서 가장 명성 높은 B-29형 "공공호새" 라고 부  
르는 비행기가 2대가 한개 분조를 짊어가지고 날고 있

었다. 그런데 그다시 똑똑하게 하늘을 쳐다보니 이런

● 분조가 하나인 것이 아니라 버지 아나운 간격을 두고 4개  
분조가 날아오고 있었다. 이 평양시 동쪽에 비록 비행  
기 B-29 형이 몇대나 참가했는지 알 수 없었으나, 폭  
격은 그 이튿날 아침까지 계속되었다. 그 결과를 비롯  
성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시민 1만 6천명이

죽었으며, 평양 중앙북는 집합체로 남기없이 봉합되  
 기 되었으며, 전기, 가스, 수도 시설 등이 전부가 폐허로  
 되고 말았고, 평양 중앙북는 거리가 다 파괴되어, 자를  
 찾는 고사하고 사람이 걸어 다니기도 힘들었다.》고 하였다.

김 선생은 1951년 3월 초순부터 전쟁이 끝날 때까지  
 평양시에 계시면서 모든 것을 목격하고 질서를 수습하였  
 으며 누가 그 선생의 공로를 인정하여 줄 일을 없었다. 어렵게  
 끝난 전쟁이 끝나자 평양 전폐 인민과 인민군대는 평양에 복구  
 사업에 전력을 다하여 일하였다.



사진은 1954년에 김영철 선생이 사회안전상과 같이  
 당 열성과 회의 뒤끝에 촬영한 것이다.

조국전쟁이 끝나고 평양시 복구사업이 좀속진 되기 시작하자 큰  
 들은 여러가지 여건을 돌리기 시작하였다. 그 여건도 더 나은 아  
 래와 같은 내용이었다. 전쟁 3년 여간에 전인민이 다같이 피  
 흘리며 투쟁하였는데 김일성이 혼자만 대원수가 되었으며

농장 (레달은 비할 지만 출신들에게만 쇠와 쥐고 중국 연안 출신  
 은 아무것도 없고 처벌만 당하는가? 중국에서는 누가 주력 활약하  
 고, 그 공로는 다 김일성에게만 돌리는가? 북경 장군은 어디로 갔는가?  
 이것은 중국 출신 간부들이 어려하였지만 남한 간부들도 불평의 상  
 당히 많았다. 그것은 특히 박헌영, 최승엽 남로당 지도간부

- 들을 처단 당할라 크게 관련되었다. 이런 환경에서 김일성은  
 자기에게만 수종하는 로동당을 안고기 위하여 당중앙에서 열하던  
 몇명의 아첨쟁이 - 김항만 (연안파, 변절하고 자기 풍조들로 다  
 잡아넣고 내중에는 자기로 잡혀 처단당한) 부 위원장을 선두로  
 하는 권체 로동당원들의 사상을 검열한다는 사상검토위  
 원회를 조직하고 1956년 초부터 각 당단체, 각성, 인  
 민군대까지 포함하여 북한 전 지역에 걸쳐 사상검토  
 사업을 시작하였다.

사상검토 사업은 어떤 기관이던, 사회단체나, 행정리  
 기관이던, 군대인 할것없이 로동당원이 참가하는 총회가  
 매월 20일을 시작하기전 약 2-2.5반 정도 시간을 리용하여

- 진행하되 총회는 밤중에 상부 당단체에서 라견한 대필과  
 열고 약 20일안은 매회가 시작되는 첫 순서로 상부파  
 견자가 « 새 민주사회 건설이란 무엇이며, 인민의 수령 김  
 일성 원수에 대한 충성이란 무엇이며, 매개 강원들은 사상  
 적으로 전진해야 하며, 겸손성, 정직성이 있어야 된다는것을

설명하여 준다. 각 당원들이 문서적으로 호론에 참가하여야 한다. 호론에 참가하는 각 사람은 자기의 충성심, 정직성, 겸손성을 실지 실례로서 지난번 과정에서 나타낸 것을 증명하여야 하며, 또 정반대로 자기가 정반대로 그렇지 못하였다면 실례로 어떤-어떤 과오들을 범하였으면

● 또 어떤 구체적인 일을 범하여 당과 국가에 어떤 해독을 끼치게 하였다는 것을 낱낱이 열거하여야 한다. 만약 그렇게 않고 어떤 위반이 있는 것을 그치고 내며 놓아 놓았다가 다른 당원의 비판에서 어떤 불제가 드러나면 그것은

은 고의적으로 당과 인민을 속여자는 야망에서 그렇게 하였다는 것으로 그를 출당주체가 철칙시켜 다른 법적 책임추궁을 하게 되었다. 이 당시에는 각자들에 대하여

● 하여 각 전직에서 재료가 소집되며, 내무성, 정치보안성 등에서 전복과 재료를 들어 집결하게 되어 왔다. 호론자의

본설이 좀 정확히 못하며, 좀 보기는 것이 있으면 그에게 2-3일 휴식으로 주어 갈 연구하여 다시 호론하라 하고

● 그 사이에 다른 사안을 취급한다. 2-3일 후에 또 역시 좀 그치는 것이 있고 비판이 철저하지 못하면, 그런 사람은 출당주어 철칙시키고 농촌에 경배사리를 보내다가 감옥에 감두된다. 이 사상 검열 회의 결정서는 누구든지 시정하든가 변경시킬 수 없는 완전무결한 물건이다.

● 그 사이에 다른 사안을 취급한다. 2-3일 후에 또 역시 좀 그치는 것이 있고 비판이 철저하지 못하면, 그런 사람은 출당주어 철칙시키고 농촌에 경배사리를 보내다가 감옥에 감두된다. 이 사상 검열 회의 결정서는 누구든지 시정하든가 변경시킬 수 없는 완전무결한 물건이다.

많은 지도 간부들이 이 사상검토회의 결정이 쟁어 지기까지는  
 사무시간이면 자기 회전의라에 앉아서 이만 저만 하고 지든지  
 시를 주다가도 검토회의 결정만 나오면 그날부터 그 간부는 회  
 의록에 기록된대로, 출직, 출당 혹은 재교양 목적으로 농촌이나 한강  
 혹은 배목장이나 어장으로 파견하곤 하였다. 그 회의 결정은 재 판

- 장의 판결보다가 더 엄격하였다. 왜냐하면, 재판의 판결은  
 상부 재판이나 최고 재판소에 이르기까지 고소할수 있기때문이다.  
 그런데 이 결정은 누가 꾸며내든가 하필 상부에서 내려온 검토  
 회의 지르 원하고 그 해당 단체 당위원장이 만들어 낸다. 물론  
 그 사상 검토회의가 시작 되기 이전에 당위원장은 자기 초안을  
 다 만들어 가지고 상부 당 단체와 해당 지르 원과 협의하여 다

- 꾸며 놓고 회의가 시작되면 그 쪽은 기판으로 그대로 돌리는 것이다. 때  
 문에 어디에 당위원장은 코 때 높은게 언행만 쳐다보면서 허  
 늘 장담만 늘 "내 뺄고 있겠어다. 이 사상 검토에는 처음  
 남로당 출신 간부들이 다 녹았으며, 다음 중국 출신, 맞이밖으  
 로 조선 출신 간부들이 다 녹았다. 조선에서 교양받으러 가라

- 난 간부들은 대단히 단속하려, 여러 동무들에게 쉽게 자기특성관부  
 를 남기어 버려 놓고, 누구나 다 자기 동무. 아주 친한 친구며, 원칙  
 처럼 여기고 아무 필요 없는 말, 과거나 현실에 대하여 검열하지  
 않고 말 하면서, "내가 네게만 말하지, 우리 사령관이 아편  
 쟁이래, 일하기 싫어 하라, 제때에 출근도 하지 아니하냐 어

그렇게 군사 규율이 확립된다는 말인가? 우리 군대는 정규군대인 것  
만 칠 무엇이냐 다 군사규정대로 일하러 행동해야지. 우리군  
대는 중국 <sup>비바</sup> 적지산 부대가 아니란 말이다. 이런 소련 출신  
아주 딱딱 하고, 교양만 이받은 총명하고 지식이, 준비된 간부

김철성이 (해군 사령부 참모장) 자기의 가장 다정한 친구란  
전 해군 군관학교 교장 직무를 지낸 소련 출신 티세호에게라  
동지적으로 술좌석에서 실속대로 말하였다. 금년의 상이 지  
난 후 사상검토 운동이 시작되자 소련간부 몇 명이 일한 해  
군사령부에서 이놈들이 무슨 유해로운 영향을 끼쳤을 것만 사실

인데 하고, 군대내 당 사상검토 총 귀수 김창만이는 지시하거  
를 그놈들로 (소련 출신 간부들을) 일년에 동당 영향에 잡아 넣고

심문은 허나씩 따르도록 지시하였다. 본래 속심이 여물 김  
철성이는 이를 딱가 불고 누르르 일군하지 않고, 그런 술좌석에서  
있는 할길에 대하여서는 입을 막아 내놓지 아니하였다. 사람잡이에

서 이력이 헛으며, 남의 속심을 배내는데는 심은 주먹기로 여기는 당  
사상검토 지르 원은 대일 번가라 할날은 김철성, 다음날은 리

세호 따르-따르 심문하며, 소치쿠고, 알타고, 추계주려 하여  
리세호의 앞에서 여말이 전복다 나오게 되었다. 불론 리세호

도 김철성을 잡으려고 여말을 한껏어 아니라, 자기의 청백성으로  
여기 위하여 그런 말이 나오게 하여 놀려서, 결국 자기의가

장 가까이, 자기를 항상 사업에서, 조아현 환경에서 단적  
감사주려 동지이러 한번 해군 참모장 김철성을 죽게 했다.

비밀계 기밀하게 심문을 맞추고, 비밀에 비밀은 다 빼내낸 사상  
검토지르자는 지기가 지르한 사상검토 회의록에 결론적으로:

전 해군사령부 총참모장 직무를 취지 하고 있던 반당, 반연민 반  
혁명 분자 김철성이인 사령관 리영호의 직위를 박탈하기와  
하여, 그리고 그 자리를 지기가 찾아내기 위하여 여러가지 허

위적 조건을 붙여 그의 위신으로 타락시켰으며, 명목적 항일 김일  
성 발치상 부대에 대하여 규준이 없으니 하면서, 지근자  
기가 지르하는 해군 부대란 정규군어니 하면서 각 방면으로  
위신을 제고 식히도록 전사들을 교양할 때 신에 정반대로

(정반대로) 교양 방침을 통해 반혁명, 반당, 반연민적 정책을 통해

취하고 언젠군 하 전사들에게 칩추 식히고 있다. 이런 형편  
에서 김철성은 절대로 해군 사령부 직위에 해당되지 않  
음으로 그를 속히 그 직위에서 철적 식히 군사재판에 회  
복할 것을 언젠군 최고사령관에게 제언한다. > 라고 했다.

또 다른 레로 전선 정치국장 김철우는 상북에서 화전반야 온  
정치간부를 자기 관하 부대 어떤 정치직위에 임명 하건 하면서

현대장계 전화하면서 << 그 사람이 대항은 4보지 많았으나 아주  
용병하고 단정하여 현신적으로 일할수 있는 사람이니 현대장 동부  
접수하여 관리용화 심시보기 하였다. 이것이 당 사상검토 회의에서

문제가 되어서 언젠군 총참모장 김광협은 말하기를 << 전선정치  
국장으로서 전체 항일 발치상 성원들이 대항 4보지 못한것을  
비변히 알면서, 어떤 말을 한것을 김일성 장군을 위속한 전체

항일빨간지시안간부들에 대한 모욕이며, 반당적, 반혁명적 인사  
 라고 규정하면서, 전선 정치구상의 자격이 없으나 극석과 권옥  
 에서 철저히 제대식후 사회에 내보내며 풀라고 하였다.  
 다른 데로, 열안에서 나온 혁명간부 리익선 (리상조 씨와  
 아주 친한 한고향사람)은 당사상 검논회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기 친근한 증부끼리 남몰래, 가만히 말하기를: «  
 그것 봐, 상북 당단체에서 지르나왔다는 사람을 보니, 아무것도  
 모르는 자취-자취한 사람이 무엇 오라 가라 하면서 거절을  
 쓰는 거야? 우리가 중국에서 사업할 때에는 김일성의 뜻 위에 얹어  
 서 김일성을 오라, 가라, 하였다는데, 오로지 김일성 혼자만이 위  
 대한 혁명 장군이고, 하여서 우리보다 가라 오라 호령하지 않  
 는가? » 말한바 있었다 그 몇분 후 이 말을 그대로 김일성  
 에게 누구인지 알리었다. 김일성은 그 극석에서 전화를 걸어  
 리을설 (여전 김일성 부관, 그 당시 평양시 경무장) 오라하고  
 « 리익선이란 놈을 당장 붙잡아 가지고, 서평양 공동묘지에  
 나가서 굴을 파고 산장하도록 김일내로 하라 » 하였다.  
 사실 리익성은 어떻게 김일성에게 복수를 배워알았다,  
 이 사상검논 운동에 걸려 소련 출신 간부들이 많아서 군사재  
 판을 받고 후복리였으며, 유영지에 나가서 헤매다 죽었으  
 며, 현재 어디에서 죽었는지 불지조차 찾아볼수 없는  
 사람이 기수복족이다.

김영철 선생은 이런 환경에서 사상검도를 받고 그 결과<sup>19</sup>,  
노련에 대한 사대주의, 노련 출신 간부들의 가족주의 노련식 관료  
주의 등 골격을 달아 등기하는 엄중검고 책벌을 받고, 철직을  
당하리 아니하였으나 이제 어느 장노, 어느 기관, 어떤 사람에 힘  
복적으로 한가지 재물만 당 위원회에 제출하면, 출당은 물론  
제가 아내, 철직 후속도 뒤따를 수 있었다.

김선생은 이런 피비린내 나는 내조극은 떠나, 워라티 미국  
에 가서 늙은 밥대로 쉬면서 자유롭게 살며, 아이들어나 공  
복시켜 줘서 주겠다고 생각하고 복언과 호의 연후 노련

대사관에 찾아 가서 남문대 귀국운동 형편을 리출하였다.  
그후 김선생은 계속 출근하면서 출장도 가곤 하였다. 임국허가  
신청은 5월 초순에 제출한것이 9월 초순에야 임국허가가

대사관에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다음 다시 조선경  
부의 승인을 얻은 다음에야 1954년 9월 24일에 평양  
에서 완전히 결산하고 9월 말일에 평양을 출발하여 10월  
10일에 모스크바에 도착하여 노련공산당 중앙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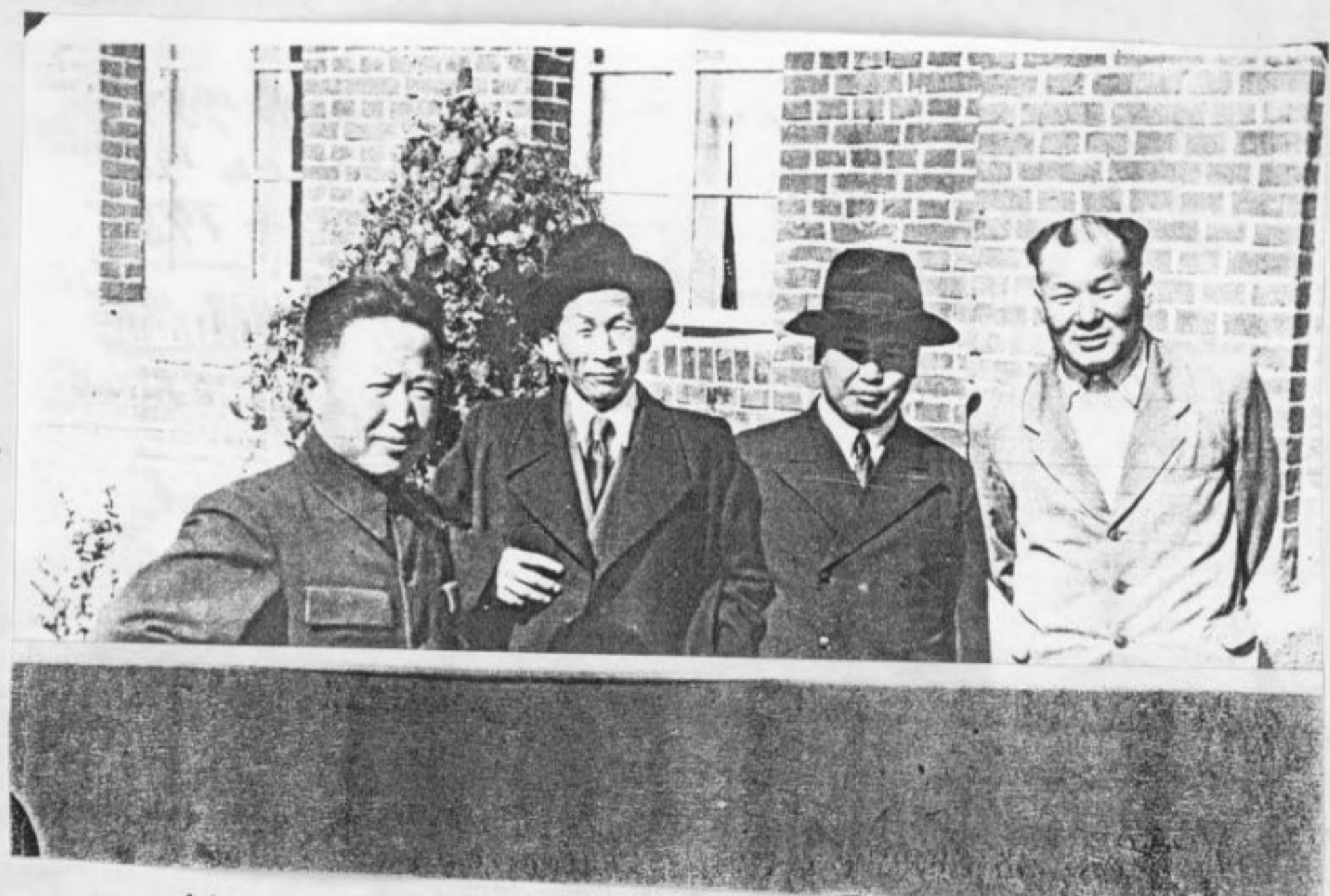
와 외무성에서 우등을 받은후 11월 25일에 하유겐트  
에 도착하였다. 하유겐트 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귀국  
물건을 접수한다음 1960년 2월 복히 유르백공화국 내부  
성에서 일하게 되었으며, 사택도 분배받고 아이 들은 전  
부다 학교에 입학 시킨후 복언은 방직공장에서 방직공으로  
일하게 된 수속이었다. 김영철 선생은 내무성 각 보좌에서



사진은 북한에서 십여년 된주건설에 참가하시다가  
한 행배로 북한에 귀국하신 김영철 선생의 동보들:  
좌로부터- 인민군 제4집단군 군사위원 김단소장, 제3집  
단군 군사위원 김복현 소장, 평양 제6고궁 교장 현이완,  
제4집단군 사령관 직에 계신 김철우 소장, 사회안전성  
정치국 선전-선동부 부장 김영철 대좌. 모스크바에서 1959.

1983년 말까지 일하시고 공훈적 공화국급 개별적 년급  
생으로 수속하고 부부간 아들 2명, 딸 2명을 데리고 행

복한 생활을 하시면서 1986년까지 계시다가 맞이막 시기에 고혈압 병으로 잠깐 쉬시다가 세상을 떠났다.



사진은 선조들의 고향-북한에서 많은 고생을 하시다가 자유와 행복을 찾아 소련에 귀향하신 후 1986년까지 일하시던 은근 생활을 하시면서 휴식시간을 리용하여 찍은 사진이다!

좌로부터: 김영철, 신철선생, 박병을선생, 주광부선생.

김영철 선생이 별세하시시 가정에는 부인 12골라브지마 사모님과 같이 아들 형제, 딸 형제가 사회에 출신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전부 다 대학을 나온 유식자들이며 이들에게 항상 존경을 받는 일꾼들이었다. 특히 광남 할아버지는 다음세대 의대를 다녔다고 하였고 다음세대는 서울대학교 종합 병원에서 외과과 과장으로 일하고 있으며 최남은 모스크바 기계전공 대학을 다녔다고 하며 워싱턴에 있는 기업소 책임공정사로 일도 보고 있으며, 딸들도 다

사대출신으로 현재까지도 교육사업에 전념을 하고  
 있으며 아름다운 가정으로 어루코 남부러움이 없어 살고 있다.  
 김복희씨와 사모님은 수십년 동안, 북한에 가서 계  
 설때에도 교육사업에 종사하시다가 1975년에 녀름 생  
 으로 넘어가 장남과 함께 아주 행복하게 지내시다가  
 1992년 4월 3일에 부음을 얻기로 하시어 세상을  
 떠났다. 세상을 떠날 때에는 벌써 백이러기 딸이  
 30세가 되었고, 큰 아이들은 40세 이상이 되어서 아주  
 행복한 생활을 하시었다.

현재 장남과 처남은 "조선 민주평화 통일 구국전선"  
 성원으로 사회 운동 사업에 열성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자기고향에 대한 소식은 매일같이 이웃에 전하고  
 설병하여 주변서 하로도록 자기 조국에 돌아가서 살  
 무없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은 청년 대열  
 에서도 열성자이기 때문에 평양에 관광단으로 갔  
 다가 문일로 왔고 구국전선 회의 참가차로 남한 여러  
 곳을 다니고 있다.

김영철 선생의 자식들이 녀름은 오직 평화통일이고  
 자기 조국에 돌아가 살자는 것이다.

재록은 김영철 선생이 자기손으로 쓴 회생기에서  
 취한 것이다. 다음에는 1998년 3월 21일.